

긴장-이완 발전적 순환...공동체 번영의 원동력

新湖南誌

전라도 1000년 호남을 바로 세우자

〈3〉광주 칠석고싸움과 농경문화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칠석 고싸움놀이는 광주시 남구 대촌동 웃돌마을에서 매년 음력 정월 10일께부터 2월 초하루까지 연희되고, 정월 대보름에 절정을 이루는 격렬한 남성집단놀이로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에 지정되었다.

고싸움에서 ‘고’는 웃고름의 고맷음하거나 씹김곳을 할 때의 고름이 등에서 살피볼 수 있듯이, 노끈의 한 가닥을 길게 늘어 둥그런 모양으로 매듭을 맺은 것을 말하며, 2개의 고가 서로 맞붙어 싸움을 벌인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고싸움은 광주, 장흥, 남평 등 호남 평야지대의 벼농사 즉 도작문화권 몇몇 지역에서 행하여진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시기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고싸움의 기원은 줄다리기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라는 설과 다른 하나는 줄다리기를 행하기 직전의 독립적인 사전놀이의 일종으로 전승되어왔다는 자체기원설 등 두 갈래가 있다.

고싸움에는 몇 가지 제의적 특성을 함의하고 있다. 먼저 고싸움에는 우리민족의 원초적 정서인 한(恨)이 응축되어 있다. 한은 중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속성에 따라 집단적인 한과 개인적인 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맺힌 한을 슬기롭게 풀어내면 신명으로 승화될 수 있지만,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마음에서 생겨나는 병인 우울증이나 화병(火病)이 생기고 만다.

恨을 신명으로 승화시켜 화합 다져

다같이 농사 지으며 대동단결 도모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도약 고민해야

고싸움의 기원을 줄다리기라고 보기도 하는데, 줄다리기 줄에 고를 형성하면 고싸움 줄이 되는 것이고, 고싸움 시합을 여러 차례 벌이다가 끝까지 승부를 내지 못하면 곶줄을 다시 풀어 만든 줄로 줄다리기 시합을 벌여 최종 승부를 가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하여 보면, ‘풀림-맺힘-풀림’의 순환원리가 드러난다. ‘맺힘-풀림’ 또는 ‘풀림-맺힘’의 순환체계는 우리민족의 문화전승의 현장에서 중요한 생활영위의 원리로 작동하였다. 긴장상태가 고조되면 어느 시기에 특별한 사전(계기)을 만들어 긴장을 완화·해소하는 기제를 설정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이완되어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면 어느 시기 긴장감을 불러넣는다. 긴장과 이완의 순환적 반복을 통해 항상 안정된 상태를 추구해 온 향촌적 사회질서를 구현하고 유지하여 온 것이다.

고싸움놀이가 역시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그 기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서부와 동부로 상징되는 암 곶줄과 솥 곶줄이 서로 맞부딪힌다는 점에서 암수의 성적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한 고싸움 곶줄의 형태가 용, 이무기, 뱀 등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고 여기는 영물(靈物 : 파충류)로 인식하는 이른바 용사(龍蛇)신앙의 구체적 상징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고싸움에는 ‘신명’이라는 축제의 흥취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동단결을 도모함으로써 공동체 번영의 원동력을 얻고자 하는 의도도 담겨있다.

고싸움놀이가 과거 또는 현재 연희되는 곳은 벼농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평야를 가지고 있으며, 300여호에 이르는 거대한 마을(大村) 또는 4~5개 마을이 인접하여 형성된 촌락이 집단(集落)을 이루는



지역들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생산성을 갖춘 마을이 아니면 고싸움 민속놀이가 생성되어 연행(演行)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에는 모든 농사작업이 사람의 육체적인 힘(人力)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논농사는 그 특성상 모내기, 논매기, 벼 베기, 탈곡 등의 작업이 보름에서 1달가량의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모내기나 벼 베기 등은 4~5명 가량의 소수의 인원만으로는 작업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부상조하는 협동작업이 필수 불가결하였다. 품앗이나 두레와 같은 여러 사람의 노동력을 하나로 모으는 전통적 작업관행의 핵심요소는 협업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 고싸움 같은 대동놀이는 농경사회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민속놀이를 연희함으로써 힘겨운 농업노동을 행할 때 일사분란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훈련 즉 ‘예행연습의 장(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에 이미 농업사회를 탈피하였고 현재 급속한 정보화와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지금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민속놀이 칠석고싸움도 종대한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주민들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동질집단인 웃돌마을 사람들만으로는 온전하게 고싸움놀이의 ‘고’를 띄워낼 수조차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는 것이다. 고싸움놀이의 항구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보다 심도 있고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연유이다. 이제 국내적 범위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의 도약도 나름 꿈꾸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고싸움놀이 전수관’도 중장기적으로 ‘광주 칠석고싸움 박물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광주·장흥·남평 등 호남 평야지대의 벼농사 지역에서 주로 활성화된 고싸움은 우리민족의 원초적 정서인 한(恨)이 응축되어 있다. 또 함께 농사를 지으며 구성된 전라도 공동체의 화합과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정신도 담겨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 대학원 국문과 수료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전라도 들여다보기

월계동 장고분

조성식

장고분은 마치 둥근 산봉우리처럼 만들어진 거대한 봉분 앞에 사각형에 가까운 기단부가 연결된 다소 특이한 형태의 고대분묘로 광주광역시와 전남 일대의 해안과 완만한 구릉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장고분은 그 형태가 전통 타악기인 장고(長鼓)와 유사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앞부분은 각이 지고 뒷부분이 원형이어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으로도 불린다.

전방후원분은 우리 고유의 묘제라기보다는 일본 열도 전역에서 주류를 이루던 고유의 무덤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무덤은 3세기부터 7세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축조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이 세계 최대 규모의 오사카남부 인덕왕릉(仁德王陵)이다. 내부 구조는 전면부 개방식 석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드물게는 동굴 형식의 석실고분도 보인다. 또한 매장시설은 지표 아래를 파내어 토광(土坑)을 형성하는 일반 무덤과 달리 흙을 쌓아올린 봉분의 상단부에 위치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전남지역 일원에서 전방후원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일부학자들은 가야지역 일대에 존재했다는 소위 한반도의 일본식민지인 임나(任那)일본부설처럼 전남지역 일대가 한동안 자신들의 지배지역이었다고 강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학계에서는 이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영산강 하구 일대는 중국 연안-한반도 서남해안 - 일본 큐슈지역으로 이어지는 고대 동아시아의 교통물류의 거점지대로 중국과 일본의 문물이 자유롭게 교섭되는 곳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한지역의 유력 지배층이 정치적 위세와 경제력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일본에서 전래한 특이한 묘제를 활용했을 개연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장주체제에 대한 정설은 아직 확립되지 않아 일본으로 건너간 마한이나 백제계 유민, 일본계 백제관료, 마한지역에서 철을 교역하던 일본 상인의 무덤 등으로 추정하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5~6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월계동 장고분은 광주 첨단지구에 위치하며, 1995년 주구에서 ‘하니와’(埴輪)로 불리는 원통형 토기 등이 출토되어 장고분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94년 2월 18일 광주시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다.

장고분은 이른 시기 삼국과 동아시아 일대에 걸쳐 분포하는 독특한 묘제인 옹관묘(甕棺墓 : 독무덤)와 더불어 한반도 남단부 전남지역의 대외개방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국제적 문화유산이다.

〈한국학진흥원 설립추진위 기획협력차장〉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